

CBS **미션** mission

CBS는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선봉에 나선 CBS
CBS 출산돌봄운동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 이음공동체
우리교회에서 누리는 JOY4U 콘서트
CBS가 흘러보낸 후원의 손길들
CBS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선물 <알렙바이블>
<새롭게 하소서> 스피노프
CBS 예배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Vol. **21**



발행 CBS기독교방송
발행인 김진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전화 02-2650-7000 (대표)
02-2650-7004 (후원안내)

‘저출산 위기 극복’ 선봉에 나선 CBS

저출산 쇼크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CBS가 앞장서겠습니다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현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2021년은 더 낮아진 0.81명이다.

2020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이 되어버렸다.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나라이자 ‘부동의 꼴찌’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2060년이 되면 핵심노동인구(25~54세)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질만큼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역량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S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한국교회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출산돌봄 캠페인1273〉**을 전개하고 있다.

Happy Birth K

한국교회를 위해 CBS는 지난해부터 교계, 정부, 기업의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출산돌봄캠페인1273〉**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교단들과 출



〈출산돌봄 캠페인1273〉을 설명하는 CBS 김진오 사장. 2021년 6월 CBS 사장 취임 이후 매주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캠페인을 설명, 홍보하고 있다.

산율 저하 및 고령화 등 당면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기 위해 **〈CBS 출산돌봄국민운동 한국교회 발대식〉**을 치르고 MOU를 체결하였다.

CBS는 언론, 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교계는 기도와 말씀 전파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저출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다.

또한 11월 11일 오후에는 정부와 세상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CBS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을 통해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짐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인구위기와 관련된 포럼을 진행하여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고, 시청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CBS Report

CBS는 모든 보유 매체를 이용해
생명돌봄 캠페인 확산 및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S

1400회
라디오캠페인

8000회
TV특별캠페인

노컷뉴스
800건
특집보도

6회
토크콘서트

350만
OTT구독자수

83개 단체
MOU체결



출산돌봄캠페인 Report

CBS는 모든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초저출산 인구 위기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이 적용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 (교계, 정부, 공공기관, 재계, 학계 등)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내 출산돌봄운동의 Social Network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국 여러 단체들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MOU를 체결하며 협력하고 있다.

CBS의 매체를 활용하여 약 1,400회의 라디오캠페인, 8,000회의 TV특별캠페인을 송출하였으며 노컷뉴스를 통해 800건의 특집보도 및 연중기획 <초저출생 : 미래가 없

다> (birth.nocutnews.co.kr)를 통해 저출산 현실의 명암을 짚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매체를 통한 외침과 더불어 교회를 향해서도 '출산돌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 주어야 가능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매 주일마다 교회 2~3 곳을 방문해 '출산돌봄'을 외치고 전하고 있다. 이 외침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공헌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GO'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안전, 아동, 돌봄, 미래 등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토크를 통해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서 출산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 위기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노컷뉴스 초저출생 : 미래가 없다 바로가기

출산돌봄운동에 함께하는 Social Network

우리 사회 각계(기독교계, 정부기관, 공공기관, 재계, 학계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BS 출산돌봄 국민운동 한국교회 15개 교단 MOU(2021.11.1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생명돌봄국민운동 MOU
 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돌봄포럼 MOU
 육아정책연구소, 생명돌봄캠페인 MOU
 고려대학교 고려사회연구소,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 MOU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 MOU (2022.5.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출산 극복 MOU(2022.6.9)
 광주시·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광주CBS MOU(2021.11.9)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CBS 업무협약(2021.12.15)
 경주시·경주시기독교연합회·포항CBS '저출산극복' MOU(2022.3.3)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저출산극복 MOU(2022.3.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MOU(2022.5.9)

파트너
그룹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회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고려대학교 고려사회연구소
Asipde of Korea University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공공소통연구소

후원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Ministry of Planning, Economic and Population Policy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보건복지부

또한 CBS는 2022년에도 활발하게 캠페인을 지속적 운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인구포럼, 온라인 특집강연, 토크콘서트, 소셜콘텐츠 및 방송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확장 및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구포럼을 개최

하여 대한민국 인구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회와 미래를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CBS 출산돌봄캠페인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보고대회도 진행하여 지난 1년간 캠페인의 성과 등을 보고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2022 Happy Birth K, 출산돌봄 1273

CBS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인구포럼, 토크콘서트, 소셜콘텐츠, 방송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더욱 확장해 추진할 것입니다



1 2022 대한민국 인구포럼
CBS본사 + 13개 지역방송본부
인구포럼_토크콘서트(7회)



2 온라인 특집강연
세바시 콘서트_인구특집
(신현준, 김미경 알파고, 박가열, 고준석 등)



3 소셜콘텐츠제작
소셜다큐멘터리 콘텐츠(2부작)
소셜 웹툰(26화)
인플루언서 소셜동영상 클라보(5회)



4 CBS 캠페인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2,100회)
한국교회 참여 캠페인 확산



5 CBS 방송콘텐츠제작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기획
노컷뉴스 기획기사 + 특별취재



대한민국 생명돌봄 대상
생명돌봄관련 ESG참여기업, 단체,
교회 발굴 및 포상

CBS 폐쇄하라 -

또 다시 CBS를 뒤흔드는 이단 신천지의 공격,
신천지, CBS를 향해 선전포고



이단 신천지가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재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개입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은 신천지가 다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포고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천지는 6월 30일, 전북CBS 사옥 앞에서 경찰 추산 3천 명 규모의 대규모 거리 대회를 열고 CBS 노컷뉴스를 규탄했다. 앞서 전북CBS는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

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동기로 '신천지로 인한 가정불화'라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신천지는 이를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 것이다.

또한 신천지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도마지파장 명의로 CBS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전도 예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10일에는 전북 전주시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9천여 명을 동원하며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었다.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쓴 집회 참가자들은 'CBS 폐쇄'를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대형스피커와 북, LED 홍보차량을 이용해 카드섹션과 파도타기를 진행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신천지 측은 질서 정연한 집회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CBS 취재진이 취재를 위해 접근을 시도하자 카메라를 가리는 등 기자를 위협하고, 취재를 방해했다.

신천지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전주 덕진경찰서를 방문해 서장 면담을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는 정읍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 공문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집단행동

을 통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의 CBS를 향한 대규모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CBS 목동 사옥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모여서 CBS 폐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목동 사옥에 3만명, 광주CBS 1만명, 대전 CBS 6천명 등 전국에 5만명 이상이 몰려들어 CBS를 공격했다. CBS가 신천지 OUT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천지에 대처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CBS를 공격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신천지는 CBS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인의 영혼과 가족을 파괴하는 신천지의 준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CBS는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 <이음공동체> 이단 전문사역자 양성과정

신천지로부터 탈퇴하였거나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탈퇴자와 교회를 이어주는 CBS 이음공동체

신천지 핵심교리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교하고 포섭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더 포교를 강화하고 있는 그들을 경계할 대책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단사역부를 만들고 새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 모든 정보와 대응 방법 등을 제공하는 CBS이단전문사역자 양성과정은
2022년 11월, 6주간 매주 월요일 4시간씩 한국교회를 위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천지OUT과 피해자를 돕는 이음공동체 사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신청 및 문의 CBS 선교국 02-2650-7931

“많은 교회가 이단을 미워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구리이단상담소 김강림 전도사를 인터뷰했다.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다행히 가족들과 이단상담소의 도움으로 10개월 만에 신천지를 탈퇴했다. 현재는 구리이단상담소에서 이단 상담사로 사역 중이다.

한국 기독교 청년의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청년 비율이 높다.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기간의 연구와 시간 투자 때문이다. 청년층은 즉각적인 행동력이 있어서 전도 인력으로 유리하다. 그들은 약 20년간 청년에 대해 연구하며 실패, 성공 사례를 데이터화했다. 사이비 특유의 집요함과 전략적 의도가 안타깝게도 큰 효과로 나타났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내 가족 혹은 친구일 때 현명한 대응 방법은?

-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하 A씨)이 가족일 경우

‘신천지’에 대한 내색을 하지 말고 이단 상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한다. A씨를 자극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A씨가 놀라지 않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또한 상담소는 신천지의 위장 전화 때문에 유선상 심층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가족 모두가 A씨 모르게 상담소로 내방해야 한다.

-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하 A씨)이 지인일 경우

상담시 A씨의 신천지 신앙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A씨가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씨가 신천지에 빠진걸 알게되면 그 사실을 ‘증거’와 함께 A씨의 가족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단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이때 교회 영역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회 영역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 내 이단 문제 발생 시 이단 상담소와 즉각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상담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주시는 것을 추천한다.

이단상담소의 역할과 상세 정보

이단상담소는 상담을 통해 이단 집단의 문제점과 어긋난 교리를 깨달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회복 교육 또한 담당한다. 또한 이단 탈퇴자 연락망을 구축해 이단의 최신 전도 전략, 내부 정보 등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단의 최신 정보와 위험성을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www.jesus114.net\)](http://www.jesus114.net)에 접속하시면 지역별 상담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와 맞서는 CBS에 기대하는 역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신천지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도 신천지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게 CBS의 역할 아닐까 한다. 또, 신천지 외에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교회가 이단을 미워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하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이단 신도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당면한 중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2015년 9월 14일 CBS는 24시간 찬양을 방송하는 JOY4U 채널을 개국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듣는 이들에겐 은혜와 감동’을 이란 모토로 시작한 JOY4U는 어플리케이션인 CBS레인보우를 통해 스마트폰과 PC에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다.

지금은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크리스천포털 앱 <만나>에서도 들을 수 있다.

라디오방송으로 시작한 JOY4U는 방송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현장을 더 많이 늘려가기 위해 JOY4U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찬양사역자들이 출연하는 JOY4U 콘서트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국내 최고의 크리스천 콘서트이다. 교회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JOY4U 콘서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0회 이상의 콘서트를 개최했고 미국 뉴욕, 애틀랜타, LA에서 5차례의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

교회로 찾아가는 JOY4U 콘서트는 모든 비용을 CBS에서 부담하고 있다.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 없이 진행되며 콘서트에서 올려퍼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분들께 콘서트 마지막에 CBS 방송선교사 결연을 권유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는 CBS의 방송선교사로서 동역을 요청드리며 콘서트는 마무리 되며 JOY4U 콘서트를 통해 동역해주신 수많은 방송선교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CBS는 하



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일정이 계속 취소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많은 교회의 요청으로 활발하게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고 고난이나 고통의 순간도 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는 주께 감사하는 기쁨의 찬양으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는 주님 주시는 힘을 간구하는 기도와 위로의 찬양으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잊고 은혜도 잊어버리기 쉽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는 찬양으로 가득한 JOY4U 콘서트가 있다.



JOY4U 콘서트는 전국 어디서나 개최 가능합니다.
콘서트 개최를 희망하시는 교회/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650-7951

CBS가 흘려보낸 후원의 손길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CBS는 1954년 창사 이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기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채워진
CBS는 이제, 빛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자 한다.

01 울진 지역 산불 피해교회 및 가정 CBS에서 후원금 전달



지난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단숨에 울진군 소재 가정과 교회를 삼켜버렸고 목회자와 성도 모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화마가 찾아간 피해 교회들은 대부분 미자립교회로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손수 건축한 의미가 남다른 성전이었다. 하지만, 전소한 교회 모두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터전을 잃고도 “주님의 뜻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눈물 앞에 우리는 멈춰있을 수 없었다.

결국 CBS는 방송프로그램 <더 콜링>을 통해 피해 상황과 사연을 방영하기로 결심했다.

<더 콜링> 방영 이후 산불 피해 지역의 상황을 시청한 많은 시청자들의 후원문의가 빗발처럼 쏟아졌다. 전국 각지에서 기도와 헌신이 이어졌고, CBS는 약 4천만원의 성금을 울진군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하였으며 귀한 성금은 피해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02 CBS의 해외선교사 지원

캄보디아 윤찬수, 전명심 선교사

2018년 교회 임대료 인상으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새롭게 하소서> 출연. 현재 교회 부지 매입, 교회 건축 진행 중

“생전 모르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격려하시고, 헌금을 하시겠다 하시고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정말 놀랍게 방송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본거죠”

전 재건축. 현재 70~80명 성도로 부흥.

“I know CBS help us, through your prayer, support, GOD is working in this church. this is a miracle.”

(CBS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다. 이것은 기적이다.)

- 필리핀 발라키롱 교회 소니 담임 목사

필리핀 고광태 선교사

2020년 필리핀 따알 화산 폭발(4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피해) 당시 CBS에서 피해 상황 소개와 모금방송 진행, 현재 성

필리핀 이은주 선교사

2021년 <더콜링> 출연 - 뇌종양 등 투병 중에도 선교 사역 중인 상황 소개. 현재 현지 도시 개발로 어렵게 세운 교회 철거,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03 '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후원금'

후원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질책받기도, 격려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후원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CBS에 후원 하고 싶으니 방문해 줄 수 있는냐는 전화에 차를 몰고 찾아간 곳은 성북구 장위동의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후원자님은 작은 교회 부근역자로 사역하시다가 50세가 되던 해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역을 그만두고, 기초 수급자로 월 30만 원가량의 정부 보조금 등으로 생활하셨다 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잘 먹지 못해 병원에 갔더니 십이지장 암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계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움직이기 도 힘들어지셨지만, 천국 가기 전 모아왔던 돈을 보낼 곳을 위해 기도하던 중, 동생분과 함께 시청하며 은혜를 받았던 CBS TV를 위해 후원하기로 결 정해서 전화하셨다 합니다.

“어느 곳보다 방송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CBS에서 몸이 아픈 본인 대신 선교를 하길 바랍니다”라며 후원금을 내어주셨습니다.

“병원비도 쓰셔야 하는데 이 돈을 다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말리는 직원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개의치 말라”라며 자신은 몸이 아파 기도가 말라가고 있으니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후원자님의 모습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분들께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주고 계시지만 이번에 된 후원자님은 유독 가슴에 남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신데 가진 것을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모두 내어주시니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라부의 두 랩돈처럼 이 헌금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헌금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4) 예수님께서는 후원자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송선교후원 안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송선교사입니다.

후원문의 : 02)2650-7004

CBS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선물

애니메이션 성경 동화 <알럽바이블>



애니메이션으로 쉽고 재미있는 만든
CBS 성경동화를 지금, 무료로 구독해보세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성경이야기

CBS가 다음세대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성경이야기 CBS성경동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총 100편으로 제작하였으며 아이들의 집중력과 눈높이에 맞춰 1편당 7분 내외로 만들었다.

믿을 수 있는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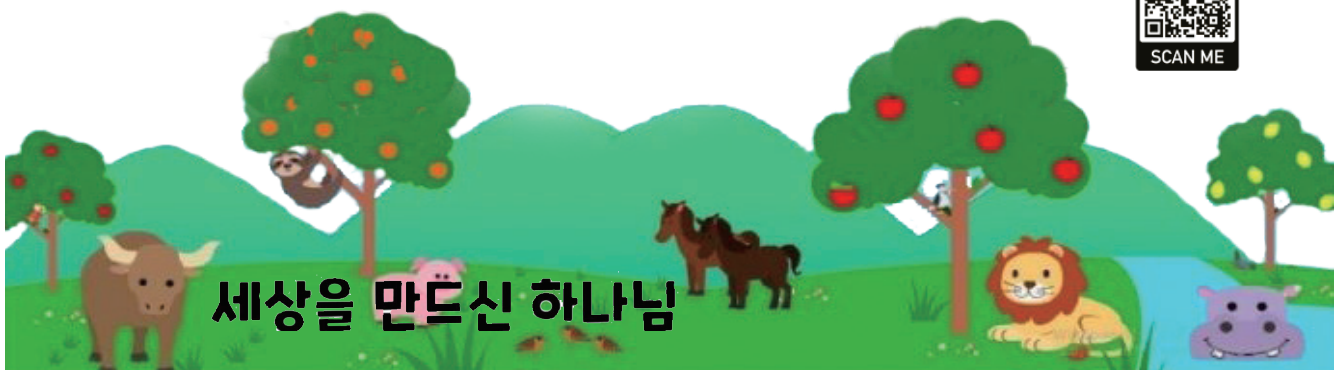
CBS 성경동화는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아냈으며 CBS 아나운서의 정확한 목소리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어린이용 성경 교육 영상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는 영상,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성서이야기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은 교회학교 선생님과 태교가 필요한 예비 부모님께도 좋은 알럽바이블

지금 유튜브로 알럽바이블을 검색해 무료로 구독해보세요!

알럽바이블 바로가기



〈새롭게 하소서〉스핀오프, 다음세대에게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는 〈새롭게하소서〉는 이제 CBS를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롭게 하소서〉를 개편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채널 구독자는 59.5만 명에 이르렀다. 구독자가 늘어난 만큼 〈새롭게 하소서〉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선물처럼 받은 이 영향력을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선한 곳에 사용하고자, 교계의 오랜 화두였던 ‘다음세대’를 타깃으로 한 〈새롭게 하소서〉스핀오프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는 〈워커홀리(Workaholy)〉이다.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증 포맷’을 고민하던 중 다음세대의 주요 고민인 ‘진로’를 주요 콘셉트로 잡았다.

〈워커홀리〉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아가 그들의 신앙 여정, 그리고 신앙관에 기반한 직업관을 들어볼 예정이다. 2030 시청자(취준생 또는 직장인)의 고민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솔루션과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새롭게 라이브〉이다.

〈새롭게 라이브〉는 ‘90년대 CCM을 다음세대 찬양 사역자가 부른다’는 콘셉트로 기획한 찬양 프로젝트다. 찬양은 다음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크리스천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CCM 부흥기였던 9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기존의 구독자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존 스튜디오 음향 시스템이 아쉬웠던 구독자에게 그간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고품질 찬양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올 가을부터 업로드될 스핀오프 콘텐츠는 다음세대에게 닿고자 하는 일념으로 기획되었다. 다음세대의 마음을 두드리고, 동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진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롭게 하소서〉와 CBS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새롭게 하소서 방송시간

본 월~수 오전 9시 10분 재 월~수 오후 10시 10분
삼 수~금 낮 2시 30분



본 월~금 낮 4시 재 월~금 오후 9시 10분 삼 월~금 새벽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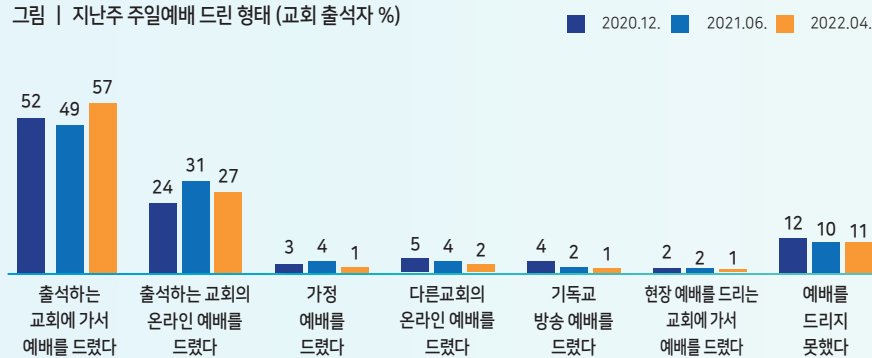
본 목~금 오전 11시 재 금~토 밤 10시 10분 삼 월~화 낮 1시

CBS 예배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2022.04.18) 이후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이제 마음껏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예배 인원이 회복되었을까?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림 | 지난주 주일예배 드린 형태 (교회 출석자 %)



그래프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146호)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4차)결과

*2020.12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개신교인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4)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보고서. 2021. 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2021.06.17-06.28)

약 2년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고, 예배의 형태도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던 기쁨을 기억하며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는 많은 성도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로 <우리동네, 우리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CBS뉴스를 통해 소개하여 교회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우리동네, 우리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교회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둘째로 <행복다이어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있다.

<행복다이어리>는 약 5분정도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1주에 2명씩, 1년간 약 100명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CBS는 방송을 통하여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교회가 회복되도록!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CBS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방송선교로 함께 할 것이다.

부산 CBS 소식지 제작 및 발송

매주 성경공부 메시지를 제작해 발송



부산CBS는 2021년 7월부터 네이버 포스트로 매달 소식지를 제작해 방송선교사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소식지에는 선교사역과 교계뉴스, 기도제목 등이 첨부된다.

소식지는 방송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현장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사역 현장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산CBS는 매주 월요일 성경공부 메시지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월요일 성경공부에는 크리스천포털앱 <만나>, 성서학당의 영상이 공유돼 방송선교사들이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산CBS는 해양문화도시 부산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소명에 충성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전북 CBS <한밤의 프레이즈> 전북 워십콘서트 개최



전북CBS가 다음세대의 영적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중학생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 전주워십페스티벌 한밤의 프레이즈'를 개최하였다.

공연은 8월 27일(토)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150분간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CBS JOY'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최정상 CCM 아티스트들을 보고 느끼며,

코로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번 공연은 워러브,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정상수, 유튜버 박위의 음악과 간증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1020세대를 겨냥한 워십 콘서트로 다음 세대와 영적 교감을 나누는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비전을 세워나가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대전 CBS 대전 CBS 내포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희망 콘서트



지난 7월 31일 내포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JOY4U 콘서트가 흥성장으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콘서트에 흥성 예산 지역 목회자 및 주요 기관장, 성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는 개국 기념 예배, 2부는 최인혁 목사님과 오은 사모의 은혜로운 찬양

이 담긴 음악으로 꾸며졌다. 또, CBS의 출산 돌봄 운동 소개와 이단 신천지 OUT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출산돌봄 관련 협약 체결식

1.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2022.7.22(금) 오전 10시,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
2. 유성구청 - 2022.8.8 (월) 오전 10시 30분, 유성구청 화상회의실 - 대전CBS와 대전 유성구가 아동 복지 및 아동 권리 등 지역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협약
3.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 - 2022.8.11(목) 오전 11시, 대전 CBS - 대전CBS와 함께 유치원연합회에서 돌봄 운동에 동참해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협약

포항 CBS CCM 콘서트 개최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찬양



포항CBS (김휘동 운영이사장, 이재웅 대표)는 6월 22일 포항대도교회 (임정수 담임목사)에서 야곱의 축복으로 알려진 김인식 목사와 '행복', '은혜'의 하니 사모, 청소년, 청년 예배사역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이빗 밴드(리더 전용수 목사)가 출연해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찬양하며 방송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 CBS 인구소멸시대, 교회는 무얼 해야 하나? 출생돌봄세미나 개최



출생돌봄캠페인이 전남 동부권 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순서노회 산하 출생돌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오후 8시, 전남 고흥군 녹동중앙교회(강용일 목사)에서 <출생돌봄세미나>를

열었다.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한 200여명의 성도와 함께 가진 이날 세미나에는 순서노회 유영철 노회장(두원중앙교회)과 출생돌봄특별위원장인 김성신 장로(보성남부교회)를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전남CBS 권신오 본부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CBS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국가와 교회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출생돌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전남 동부지역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는 날까지 지역 교계와 손잡고 캠페인을 전개해 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전남CBS는 가칭권인 전남 동부권 예장통합 4개 노회에 <출생(산)돌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생돌봄 토크콘서트, 세미나, 정책토론 등을 이어가고 있다.

CBS를 기도해 위해 주십시오!

CBS
폐쇄

CBS 후원 안내

1. 출산돌봄캠페인1273,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
2. 방송선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후원
3.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 이음공동체를 위한 후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80-100991

예금주 | (재)CBS

후원문의전화 | 02-2650-7004

홈페이지 | love.cbs.co.kr